



학문하는 즐거움과 교수 업적 평가

이 성 은 | 이화여대 조등교육과 교수

공자의 논어는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 而不溫 不亦君子乎”로 시작한다. 그 해석을 해 보면 “배우고 또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친구가 스스로 찾아와 주니 이것 역시 즐겁지 않은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니 이것 역시 군자가 아닌가”라고 했다. 교수의 3대 의무는 연구하는 것, 강의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다. 이 3대 의무를 공자의 말에 비유하면, 연구하는 것은 ‘학이시습’이고, 강의하고 봉사하는 것은 ‘유봉이 자원방래’ 하는 것일 것이다. 학이시습을 하면 자기 학문이 널리 알려져 제자들과 친구들이 스스로 찾아와 자기 학문을 배우고 칭찬을 해주고 업적을 칭송해 준다면 이것만 큼 큰 즐거움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자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려고 했던 말은 그 다음 말일 것이다. 즉, “사람들이 학문의 업적을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더라도 화내지 않는다면 참으로 이를 두고 군자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이다. 교수라면 스스로 자기의 학문을 즐기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익혀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 대학 사회에서의 강의와 연구는 교수들에게 겹추는 도구로 변모해 가고 있다. 강의를 시작되는 학기 초에는 학생들이 얼마나 자기 강의실에 들어오나 전전긍긍해야 하고, 강의가 끝난 학기

말에는 얼마나 강의 평가가 잘 나오나 노심초사해야 하는 것이 지금 한국 대학 교수들의 실상이다. 전전긍긍하다 노심초사로 끝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방학이 시작되면 연구 업적을 올리기 위해 전력 투구해야 한다.

세계화와 함께 ‘무한경쟁’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 곳곳에 상투어 같이 유행하게 되었다.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학 그리고 대학교수들을 이렇게 쥐어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한경쟁도 좋지만 과연 학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한경쟁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강의와 연구하는 것이 겁이 나서 소신껏 할 수 없다면 결국 이 피해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 공자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학문이 무한경쟁 속에서 서로 잘 낫다고 뽑내기 위해서 경쟁함으로 된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학문이란 ‘박문약례(博文略禮)’라고 했다.

널리 배우고 다시 그것을 예로 간추리는 것이란 뜻이다. 그리고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미망에 빠지고, 반대로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어지러워진다고 했다. 연구하는 것만이 전부라는 뜻이다. 그것을 다시 여유를 두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교수 업적 평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종이의 빈칸을 채우는 양에 치

“

강의가 시작되는 학기 초에는 학생들이 얼마나 자기 강의실에 들어오나 전전긍긍해야 하고, 강의가 끝난 학기 말에는 얼마나 강의 평가가 잘 나오나 노심초사해야 하는 것이 지금 한국 대학 교수들의 실상이다. 전전긍긍하다 노심초사로 끝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방학이 시작되면 연구 업적을 올리기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

”

우치는 경향으로 흐르고 말았다. 그리고 '학'에 만 치우쳐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체득하는 '시습'을 거의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공자의 이러한 학문관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용지물인가? 그리고 과연 세계화와 함께 대학도 무한경쟁만 해야 살아남을 것인가?

군자 같은 교수가 없는 한 정글의 법칙에 따라 무한경쟁을 시켜 살아남을 자만 살아남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들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정글에도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강의 평가제만 해도 그렇다. 학생이 스승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는 유교적인 관습 때문에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에 문제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 학생들이 정말 강의 평가를 할 때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하느냐는 따로 하교라도 평가 문항에 있어서 "강의는 전반적으로 좋았다", "강의는 체계적이었다" 등의 항목은 100여 명이 넘는 대형 강의실과 20~30명의 소형 강의실에서도 그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험과 과제물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교수는 학생의 강의 이해도에 관심을 가졌다"와 같은 문항은 소규모 강의실의 경우 교수들은 각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과제 점검을 충실히 할 수 있겠으나, 대규모 강의실의 경우 교수들은 도저히 학생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심 표명과 과제를 성실히 평가하기에 역부족이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를 확

일화하고, 점수화하여 교수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강의 평가 외에 교수는 연구 업적 평가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실 '연구'와 '강의'는 상호 정비례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반비례하기 마련이다. 교수가 참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에 치중하다 보면 말은 강의에는 불충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아예 연구교수와 강의교수를 구분해 버린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구분도 없이 한 교수에게 강의도 잘 해 학생들로부터 강의 평가도 잘 받고, 연구 업적도 좋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정글의 법칙마저도 무시해 버린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정글에서 토끼 같은 약자가 사자 앞에 다 잡혀 먹히지 않고 살아 남는 이유는 토끼는 단거리에 명수이고, 사자는 장거리에 명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끼가 급습만 안 당하면 거의 안 잡히고 만다. 그러나 한국 대학은, 교수에게도 적성이 있는 법인데 이런 정글의 법칙마저 무시하고 무한경쟁을 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정글의 법칙도 무시하고 무한경쟁을 시키는 한국 대학의 실태를 연구 실적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보자. 연구 실적을 점수화 하여 모든 교수들을 수험생들과 똑같이 점수의 노예로 만들어 "논문 쓰느라 연구를 할 수 없다"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이다. 아마 대학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이 나지 않을 것이다. 논문 쓰는 것

“

대학 사회의 현실적 특징은 자율성이라 할 수 있다.
강의 평가와 교수 업적 평가를 실행하되, 강요하거나 획일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스스로 잘 가르치고 연구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업적 평가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변화하기를 독려하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

이 연구가 아니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논문 쓰기'와 '연구'가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논문이 어느 학술지에 실리느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기 분야에서 독창적인 논문을 썼다고 하더라도 지정된 학술지에 실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하기'와 '논문 쓰기'는 따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적나라한 현실이다.

여기에 더해, 이미 앞서간다는 몇몇 대학에서는 학술진흥재단의 심사에 의해 등재된 학회지와 등재되지 않은 학회지의 논문 게재 여부에 따라 차등된 연구 실적 점수를 주고 있다.

등재된 학회지라 하여도 A급, B급에 따라 그 점수 또한 큰 차이를 두고 있다. 이는 학문의 또 다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교수들을 학술진흥재단 앞에 한 줄로 세우고 있다.

지난 1~2년 사이에 모든 학회지는 앞다투어 학술진흥재단의 심사 등재에 혼혈을 기울이고, 공고된 심사 기준에 꿩 맞추는 작업에 열중이다.

여기서 학술지에 얽힌 에환 한 예를 소개하려 한다. 이 학술지는 해당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로서 오랜 동안 그 역사를 자랑해 오고 있는 터였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학술지가 학술진흥재단 등재 과정에서 탈락이 되자 많은 교수들이 이 학술지에 논문을 실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오랜 역사가 있는 이와 같은 학회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현

상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어디 이 한 학술지 뿐인가? 지금 여기에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전공 학술지들이 같은 지경에 처해 있다. 학술지 등재를 하자니 위험 부담이 따르고, 등재를 하지 않을 경우 좋은 논문을 실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 뿐인가? 외국 학술지에 게재한다는 것은 황금방식에 앉는 것처럼 우대하고 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학문 영역에 따라 학문하는 입장이 있는 데, 특히 인문학의 경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상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적 없는 학문 풍토를 더욱 부추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 창의적이며 새로운 이론의 경우는 어디서도 발붙일 곳이 없는 것이 소위 지금 자행되고 있는 '교수 연구 실적'이란 허울 속의 실태인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는가? 마치 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있는 정책이 의료 정책이 아닌가? 그 취지에 있어서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 공무원들이 책상 앞에 앉아도 상 연습을 한 것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했기 때문이며, 현실에서 원칙을 찾아내는 귀납적 방법이 아니고 원칙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연역적 방법을 취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교육 개혁이 제대로 안되는 원인도 이런 연역적 사고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교수 업적 평가도 외국에서 실행하고 있다고 하여 그 원

리만을 가져다가 우리 현실에 무작정 적용했기 때문이다.

누가 무어라 해도 우리 교육은 서당과 향교 교육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거기서 학생이 스승을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리고 도대체 지덕체를 함양하는 교육에서 어떤 기준으로 교수의 업적을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육의 뿌리이고 이것이 눈에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한국 교육의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엄연히 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서구식 교육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전통과 서구화가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유착돼 있는 장소가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맞은 교육 제도와 방침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국 근대화란 이름으로 제 1차 그리고 2차 경제 개발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정책 입안자들이 현실과 현장 중심적 사고를 하고 거기서 원리를 찾아내었기 때문이다.

대학 사회의 현실적 특징은 자율성이라 할 수 있다. 강의 평가와 교수 업적 평가를 실행하되, 강요하거나 획일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스스로 잘 가르

치고 연구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학술지도 학술진흥재단이 제시한 기준에 한 줄로 세우기보다는 각 학회의 특성에 따라 여러 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제도적으로 업적 평가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변화하기를 독려하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러셀은 여유가 없고 조금한 사람에게는 학문이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공자는 아마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제자들과 친구들이 스스로 찾아와 학문을 논하고 설령 사람들이 자기의 학문의 업적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내지 않는 것이 진정한 학자라고 한 것 같다. ㉞

이성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La Verne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민학교' 명칭 개정협의회 집행위원장, 교육부 시·도 교육청 평가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교수, 한국 열린교육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학교 변화와 열린행진』, 『국어과 열린교육』, 『층체적 언어 교육』 등이 있고, 논문으로 『현대 과학 패러다임으로 본 한국 열린 교육』, 『교직의 여성화』, 『한국 문화 전통과 여성 지도력』 외 다수가 있다.

